

한국문화교류 소식

33호 2019년 9월 15일 발행·발행인 위호인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04173 서울시 마포구 삼개로 16, 408호 (도화동, 근신빌딩 신관)

전화 02-2285-1070 팩스 02-2285-5070 메일 hangyobon@gmail.com 홈페이지 www.ickc-seoul.net



ICKC와 함께 하는 시간들



장 정 용

ICKC 운영위원,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실 '2019 홍천 마리소리 가을맞이 잔치'를 열심히 준비하고 뜻 깊은 무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 도 기타를 치면서 회원님들을 맞이할 준비를 해왔고, 함께 할 수 있어서 참 기뻐했습니다.

악기체험과 함께 전통춤과 전통음악의 향기도 느꼈고, 아미치합창단을 통해서 현대음악과 조화를 이루고 문화를 어떻게 발전시키며 어울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강릉관노가면극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전파되기를 바라면서 재미있게 즐겼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도 순환의 원리에 따라 물러가고, 코스모스 한들거리는 가을이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강원도 홍천 마리소리골에서 귀중한 회원이신 이병욱 교수님과 전통춤 이수자이신 황경애 여사님이 회원님들을 맞이하

마지막으로 어울사랑 기타반의 추억의 연주여행의 최고의 관객이자 동반자는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의 회원님들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마음들이 우리문을 세계로 이끄는 힘이 된다고 생각하니 감사

할 따름입니다. 앞으로 더욱 문화교류의 가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돌이켜보니 ICKC와 인연을 맺음으로써 한글과 태권도를 비롯하여, 한국음악, 전통무용 등 한국적인 모든 것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더욱 커진 듯합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라는 말이 실감 나기도 하고 또한 세계적인 가치가 있는 것들로 우리의 문화와 생활양식을 한층 더 발전시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ICKC와 함께했던 여행을 통해서 견문이 넓어지고 회원님들과 가족 분들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고 든든한 마음의 연결 끈이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통해 배려를 강조하신 회원님의 글이 아직 가슴에 남아 있는데,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닥쳐도 ICKC 회원님들을 생각하면 힘과 용기가 생겨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시행하는 문화역사 탐방으로 인하여 우리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적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고, 과거 조상들과 대화를 하는 듯 했습니다. 과거가 거울이 되어서 미래에 더욱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윤문원 작가님을 비롯한 여러 명사 분들의 문화강좌를 통하여 한층 더 교양과 지혜의 폭이 넓어져가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부족한 해안을 일깨우고, 생활의 향기가 묻어나도록 자신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기를 다짐합니다.

ICKC의 운영위원으로 추천해주시고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위호인 이사장님을 비롯한 박의근 재정위원장님, 그리고 ICKC를 사랑하시는 모든 회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ICKC운영위원으로서의 저의 마음가짐은, 첫째, 더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접하고 배우고 깨닫고 전달하겠습니다.

둘째는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으로 회원님들을 대하겠습니다.

셋째는 더욱 향상하는 마음으로 나부터 지금 이 자리에서 더욱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의 발전이 가정과 나라 발전의 근본임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ICKC와 맺은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고 회원님들 더욱 건강하시고 항상 기쁘고 행복한 마음가짐 속에서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가 날이 갈수록 더욱 발전하는 단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9년 9월 2일
장정용 삼가 씁니다.



▲ 마리소리folk악기박물관에서 펼쳐진 아이치 합창단의 공연



▲ 어울사랑 기타바의 추억여행 공연 (맨 오른쪽이 필자)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 네팔태권도협회에 태권도 발전 기금 전달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는 지난 8월 3일(토), 네팔 카트만두 현지에서 네팔태권도협회장에게 태권도 발전 기금을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전달식에는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겸 ICKC 총재, 조남철 전 ICKC 이사장 겸 아시아발전재단(ADF) 상임이사 등 ICKC 및 네팔 측 주요 인사가 참석하였습니다. 함께 참석한 강석재 ICKC 이사의 글을 게재하여 회원들께 당시 현장 상황 및 발전기금의 취지를 전합니다. _ ICKC 사무국



강 석 재

ICKC 이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조정원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ICKC) 겸 세계태권도연맹(World Taekwondo, WT) 총재가 지난 2019년 8월 3일 네팔 카트만두 ‘네팔국립태권도아카데미’에서 프라케시 쉼셔 라나(Prakash Shumsher Rana) 네팔태권도협회장에게 태권도 발전 기금을 전달했다.

네팔 측에 전달된 발전 기금은, 최근 ICKC(이사장 위호인)가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GCS International)에 전달한 발전 기금과,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와 국민일보 공동 주최로 지난 2019년 6월 29일 경기도 파주에서 실시한 ‘2019 DMZ평화대축제’ 수익금으로 조성되었다.

ICKC는 지난 2018년 9월 28일 세계태권도연맹(WT),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그리고 아시아발전재단(ADF, 이사장 김준일)과 태권도, 한국어 및 한국 문화를 통한 저개발국 소외계층 지원에 관한 4자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프라케시 슈서 라나 네팔태권도협회장에게 태권도 발전 기금을 전달하는 조정원 ICKC 총재



네팔 태권도 발전 기금 전달식에서 ▶ 개회사 중인 조정원 ICKC 총재

위 협약에 따라 지난 2018년 11월 1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정원 GCS인터내셔널 총재와 조남철 당시 ICKC 이사장이 태권도 발전 기금을 캄보디아태권도협회장에게 전달했다. 이번 네팔 태권도 발전 기금 역시 저개발국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취지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네팔 현지 태권도 교육 및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8월 3일 네팔 태권도 발전 기금 전달식 이외에 WT 네팔 ‘태권도 케어스’(Taekwondo Cares) 프로젝트 개막식이 열렸으며, 8월 5일에는 ‘네팔국립태권도아카데미’ WT 지역훈련센터 인증식 행사가 열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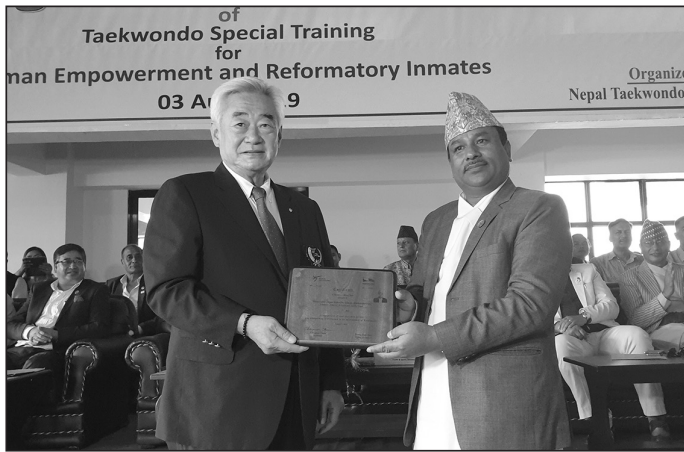
정좌 중인 네팔 태권도 수련생들 ▶



◀ 네팔 태권도 발전 기금 전달식에서
태권도 품새 시범 중인 네팔 학생들

소년원생과 가정 성폭력 피해자 여자 아이 총 250명을 대상으로 하는 태권도 무상 교육 프로그램인 ‘2019년 네팔 태권도 케어스 프로젝트’는 세계태권도연맹이 주최하고 아시아발전재단이 후원하며, ‘네팔태권도협회’가 카트만두 시내 6개 단체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

‘2019 네팔 태권도 케어스 프로젝트’는 1년간 일정으로 지난 4월 초 시작되었으며, 세계태권도연맹과 아시아발전재단은 지난 1월 아시아 지역 저개발국가 태권도 지원을 위한 1억 원 지정기부금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 조정원 총재로부터 태권도 명예7단증을 수여받는 달진 실팔리(Daljet Silpali) 네팔 체육부 장관



네팔 태권도 발전 기금 전달식 ▶ 참석자 기념 촬영

세계태권도연맹은 지난 7월 초부터 1년간 프로그램으로 스리랑카 및 킬게리(Kegalle) 길거리 아이들 83명을 대상으로 ‘챔피언을 향하여’ (Road to Champions)라는 이름의 ‘WT 태권도 케어스’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세계태권도연맹은 이번 ICKC 태권도 발전 기금 등을 바탕으로 빠르면 오는 10월부터 캄보디아에서도 ‘WT 케어스’ 프로젝트를 실시할 계획이다.



정체성 강한 한국계 브라질인 육성을 위해



한복녀

브라질 대건한글학교 교사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대건한글학교는 1984년 2월 4일에 개교하여 올해로 35년째를 맞고 있으며, 봉헤찌로 한인타운에 위치해 있다. 브라질에 사는 재외동포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한국어와 함께 한국 문화와 전통을 배우고 익혀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니게 하고자 설립되었다. “언제나 어디서나 정의와 사랑과 양심에 살자.”라는 교훈 아래 바르게 생각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힘을 쏟고 있다.

대건한글학교는 가톨릭 부설 학교이나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브라질에 있는 한글학교들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며, 오랜 역사만큼 체계적인 학교

관리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다. 전체 학생 수는 약 200명, 학급 수는 15개이며, 수업은 매주 토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1시까지 4교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학교 수업의 특색은 한국어, 한국의 역사와 문화 등을 단계별로 통합하여 다양한 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교내 행사로는 크게 동화구연 및 말하기 대회(11회), 합창대회(14회), 단어 경시대회, 포스트 게임 등과 같이 학교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는 행사가 격년 제, 작제는 ‘3·1절’, ‘어머니&아버지날’, ‘광복절’, ‘한글날’ 등과 같이 기념일과 관계된 행사 활동은 매년 시행하고 있다.

교외 행사로는 매년 (사)나의꿈국제재단이 주최하는 ‘청소년꿈발표제전’, 브라질 한글학교 연합회가 주최하는 ‘청소년 말하기 대회’, ‘한국 역사 문화 캠프’, ‘우리나라 노래 부르기 대회’, ‘꿈나무잔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생들이 배운 한국어를 발표하고 한국역사문화를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한국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각 단계별 - 난생설화’(1단계) ‘재외동포 한인 브라질 이민사’(2단계), ‘한국 전통예절(3단계)’ - 역사문화 수업을 진행했는데 1

브라질 상파울루에 있는 대건한글학교는

한국어는 물론 한국문화수업을 체험 중심으로 즐겁게 운영함으로써

이들이 한국계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한국계 브라질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중점적으로 교육하고자 한다.

단계와 2단계 수업을 소개해 보겠다.

1단계(6세~만 8세)에서는 ‘알에서 태어난 왕들(난생설화)’에 대해 합동 역사 수업을 하였다. 단군신화에 대해 1차 합동 수업을 한 후, 2차 역사 수업으로 ‘알에서 태어난 왕들’을 주제로 수업하였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신화를 배움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나라 이름에 관심을 가지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수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서 진행했다. 먼저 짧은 동화 영상자료를 시청한 후, 약 60명의 학생을 4그룹으로 나뉘어서 4개의 게임을 진행한다.

박혁거세는 사람들이 숲속에서 날개 달린 말이 날아간 자리에서 알을 찾았다는 점과 연관 지어서 알 보물찾기를 했고, 석탈해는 바다에 떠다니던 껌짜를 할머니가 발견했다는 점과 연관 지어서 학생들이 빈 페트병을 들고 한 줄로 길게 서서 바다를 나타내고 알을 표현한 공을 뒤로 전달해서 마지막에 할머니 머리띠를 쓴 학생에게 빠르게 전달하도록 놀이를 진행했다. 김수로는 거북모양 바위에서 상자를 발견했다는 점과 연관해서 학생들이 구지가를 부른 뒤, 구멍이 뚫린 거북이 상자 안에 알을 나타내는 공을 넣어놓고 진행했다. 주몽은 유화부인과 해모수의 아이로 태어났

다는 점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머리띠를 쓴 학생과 물방울 머리띠를 쓴 학생들이 합심해서 아기 그림이 들어간 흰 풍선을 터뜨려 아기 그림을 찾아내도록 했다.

놀이가 끝날 때마다 그 놀이와 연관된 왕의 그림을 나눠주고 미리 나눠 준 ‘알 책’에 왕 그림들을 붙이도록 전체적으로 진행했다. 놀이를 진행할 때 한국어 수준이 입문부터 중급인 학생들이 모두 모여 한 모둠을 이루도록 했더니 서로 협력하여 놀이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놀이 후에 왕들의 이름을 대부분 알게 되었고, 나라의 이름도 알게 되었다. 구지가까지도 기억하는 학생들이 제법 있어 학습 효과가 좋았다. 놀이를 시작하기 전에 김수로 왕이 가야를 세웠다고 이야기했을 때 “가야는 식당 이름 아니에요?” (현지에 ‘가야 식당’ 있음)라고 하던 학생도 이 활동을 통해 한국에 ‘가야’라는 나라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2단계 통합역사 수업으로는 재외동포 한인 이민사(브라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I ‘나의 가족 이주 역사 알아보기’와 II ‘브라질 속 한국 알아보기(봉헤찌로 지역 중심)’의 두 가지 대주제로, I-① 우리 가족은 현재 이곳에 언제부터 정착하였나?, I-② 이민 오게 된 이유와 브라질로

이민 온 이유, I-③ 어떻게 왔어요?(브라질·한국 이동 수단), II-① 봉헤찌로 거리 이름 조사(위치, 유래), II-② 봉헤찌로 주요 공간(문화, 역사 등) 조사, II-③ 내가 사는 지역에 대해 알아보기 등 세부 항목으로 나눠 알아보았다. 사전 설문지를 학생들에게 숙제로 나눠주고, 각자의 (가족 이민) 이야기를 조별로 나눔을 갖게 한 후, 이민사와 관련된 세부 내용은 강의로 설명하였다.

이 수업은 학생들에게 세계 동포 이민사에서 브라질 이민사까지 거쳐 한인 타운(봉헤찌로 중심)의 지역조사 및 탐구를 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발언권을 얻은 학생은 리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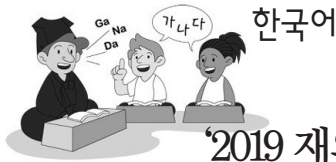
되어 각 조원의 이야기를 듣고 본인의 가족사도 얘기해보며 그 내용을 모아 정리하는 형태로 했는데, 교사들이 주도하는 것보다 오히려 좀 신선했던 활동이었다.

브라질 한인들의 세대교체가 거듭 진행되면서 차세대들에게 정체성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브라질인으로만 살아가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교는 한국어는 물론 한국문화수업을 체험 중심으로 즐겁게 운영함으로써 이들이 한국계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갖고 한국계 브라질인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중점적으로 교육하고자 한다.



대건한글학교의 단계별 역사 수업 모습들





‘2019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수상작 전시회 열려

(재)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사장 임영담)은 ‘2019년 재외동포 어린이 한국어 그림일기대회’ 시상식을 지난 8월 6일 세종시 교육부에서 개최하고, 수상작을 8월 5일부터 16일까지 교육부 1층에서 전시하였다.

교육부가 주최하고 (재)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이 주관한 이 대회는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민족 정체성을 가진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 세계 44개국 555명의 재외동포 어린이들이 한국어·한국문화·역사를 배우며 느낀 점을 그림일기로 출품했고, 대상 1명, 최우수상 1명 등 총 14점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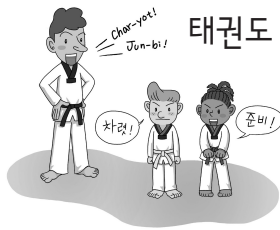
대상(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상)을 수상한 케냐한글학교 김지오 학생의 그림일기에는 국적을 묻는 케냐 사람들에게 “한국사람”이라 답하면 “남한? 북한?”으로 다시 묻는 이유를 한글학교 수업을 통해 알게 됐으며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끼리 싸우고 화해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것이 속상했다는 순수한 마음이 나와 있다.

최우수상(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상)을 수상한 인도 뉴델리한글학교의 김선우 학생은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림일기를 통해 소중한 우리 땅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일본사람들의 생각을 고쳐주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다. 이외에도 맑고 순수한 어린이들의 동심을 통해 표현된 다양한 그림일기들은 웃음과 함께 깊은 감동을 선사하였다.



[기사 출처] 재외동포신문, 이현수 기자, 2019.08.05.

▲ 대상을 수상한 케냐한글학교 김지오 학생의 그림일기



난민캠프 청소년 지원 위해 두 손 잡은 태권도 · 레슬링

세계태권도연맹(WT)은 19일(현지시간) 요르단 아즈라크의 시리아 난민캠프에서 태권도박 애재단(THF), 국제레슬링연맹(UWW)과 '평화를 위한 모두의 열망'이라는 난민 청소년 돕기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WT는 “올림픽 스포츠 종목의 국제경기연맹이 합동으로 난민 청소년 돕기 행사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WT, THF, UWW는 지난해 10월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WT와 THF가 아즈라크 난민 캠프에 개관한 태권도센터를 활용해 난민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날 행사에는 요르단 왕자인 파이살 알 후세인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집행위원이 IOC를 대표해 참석했다. WT와 UWW의 홍보대사들도 참여해 난민 청소년들에게 태권도와 레슬링을 가르쳤다.

[기사 출처] 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2019/07/20



▲ 세계태권도연맹 시리아 난민캠프 청소년 돕기 행사

■ 6월 문화탐방 실시 - 면암 최익현 묘소 참배 등 충남 예산, 당진 일대

지난 6월 20일(목), 6월 문화탐방으로 충남 당진 및 예산 일대를 탐방하였다. 서울 일대를 벗어나 지방으로 향한 이번 탐방에는 모두 26분의 회원이 참석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작가 심훈이 소설 <상록수>를 집필했던 당진 필경사를 시작으로, 김대건 신부의 탄생지인 솔피 성지, 추사 김정희 고택, 남연군 묘를 거쳐 마지막 탐방지이자 이번 탐방의 목적이기도 한 면암 최익현 선생의 묘소로 향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올해, ICKC는 일제의 폭력에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했던 면암 최익현 선생의 뜻을 기억하고 기리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선생의 묘소를 찾았다. 최익현 선생 묘소에서 추모의 제사를 지내고 참배하는 것으로 위호인 이사장을 비롯해 참석한 ICKC 회원들은 예를 표했다. 이번 탐방은 시대를 넘나들며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진면목을 아우를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다.



■ 이효정 ICKC 운영위원 겸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서울무궁화로타리클럽 회장 취임

재외동포 여성들의 권익신장 도모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단체인 세계한인여성협회의 이효정 총재가 지난 7월 10일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무궁화로타리클럽 31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국제로타리클럽은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34만여 개 클럽 120만 여명의 회원이 활동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봉사 단체이다. 한국에는 현재 1,500여 개의 클럽이 활동 중이며, 서울무궁화로타리클럽은 서울 강남지역인 3640지구 소속에 있다. ICKC 운영위원이기도 한 이효정 회장은 2020년 6월 30일까지 국제로타리3640지구 서울무궁화로타리클럽 31대 회장으로 활동하게 된다. 당일 이·취임식에는 ICKC 운영위원이자 인성교육 전문가인 윤문원 작가가 '행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하여 함께 자리를 빛냈다.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 소식

■ '2019 흥천 마리소리 가을맞이 잔치' 성황리에 마쳐

지난 8월 31일 “2019 흥천 마리소리 가을맞이 잔치”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올해로 7년째를 맞은 본 축제는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우리 음악의 멋과 흥의 세계를 펼쳐 보였다. 올해는 한강풍류악회, 어울사랑예술단의 전통음악 공연, 세계적인 성악가 이재환 교수의 지휘로 아미치합창단이 선보인 합창을 시작으로, 이후 강릉관노가면극보존회의 가면극, 어울사랑 기타반의 기타 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과 행사가 선보였다. 전통악기 체험, 서승연 화가 초대전 등도 빼놓을 수 없는 볼거리였다. 매년 본 축제를 후원하고 있는 ICKC에서도 많은 회원이 함께 참석하여 예술인, 지역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겼다. 참석한 회원 여러분 및 멋진 자리를 만드느라 노고를 아끼지 않은 주최 측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뜻을 전한다.



2019년 후원하여 주신 분

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활동을 위해 보내주시는 관심과 후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이 헛되지 않도록 소중하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강성구, 강석재, 강영광, 강영실, 강재근, 구병진, 김건길, 김명수, 김복음, 김소진, 김영규, 김영훈, 김용구, 김용준, 김정복, 김정일, 김정택, 김종근, 김진원, 김호일, 김홍석, 류성식, 문영호, 박관용, 박미화, 박원출, 박익근, 배대환, 성호동, 심의표, 유영찬, 유지효, 윤윤식, 이대근, 이병욱, 이상철, 이석중, 이성호, 이영섭, 이용선, 이항구, 이한묵, 장정용, 장호익, 전영섭, 정상설, 정영숙, 정진화, 정현관, 조두연, 조춘연, 조평규, 추호석, 최춘이, 표재순, 홍경자, 홍계화, 황경애, (주)세협엔터프라이즈, 수풍산업(주), (주)신동, (재)아시아발전재단, (주)P&H

(가나다순, 2019년 1월 1일 ~ 2019년 8월 31일까지)

총액 : 30,890,000원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International Center for Korean Culture(ICKC)

2011.03.30. 창립총회 개최
2011.08.16. 사단법인 인가 (문화체육관광부 제2011-29호)
2012.10.02.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166호)
2016.03.30. 총회 및 창립 5주년 포럼 개최
2018.06.29.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
2019.03.29. 총회 및 창립 8주년 포럼 개최

조직 구성

고문 강성구 前 MBC 사장
김길남 국제한민족연구재단 대표
김용구 (주)신동 회장
박갑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박관용 前 국회의장, NDI 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이사장
조남철 前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아시아발전재단 상임이사
최불암 예술인

총재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

이사장 위호인 (주)뉴플러스컴 회장

이사 강석재 세계태권도연맹 전문위원
박익근 재정위원장, (주)P&H 회장
송중국 경희대학교 태권도학과 교수
이형모 재외동포신문 대표
조춘연 정일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운영위원 윤문원 작가, 인성교육 전문가
이효정 세계한인여성협회 회장
장정용 (사)한국이집트발전협회 수석부회장

감사 전영섭 변호사
박원출 前 한국조폐공사 사장

ICKC 홈페이지 및 회원가입 안내

ICKC는 회원 여러분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주소는 <http://www.ickc-seoul.net>입니다. 위 홈페이지에서 단체의 공지사항 및 최근 활동 현황, 한국어·태권도 관련 주요 뉴스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발행된 모든 소식지 역시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그리고 ICKC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있는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 하셔서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시거나 ICKC 사무국으로 연락 주십시오(연락처는 본 소식지 1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친절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후원금 보내 주실 곳

신한은행 100-027-567461 국민은행 068801-04-248856 예금주 : (사)한국문화국제교류운동본부

※ 본회는 기획재정부가 승인한 지정기부금 단체(기획재정부 고시 제2018-17호)입니다. 여러분이 내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에 의해 100%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으며,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의해 법인소득금액의 50%까지 전액 손금산입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한인여성협회

United World Korean Women

창립 6주년 기념

세계한인여성정책포럼

2019년 10월 6일 오후 3시 개막식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

모시는 글

세계한인여성협회 (United World Korean Women) 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한민족 여성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미래로의 방향성 제시"라는 주제로 세계한인여성정책포럼과 '제1회 대한민국 세계화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합니다. 해외참석자 초청 문화행사는 올해 한국 방문의 해에서 선정된 전라북도 정읍시를 방문합니다.

지구촌 대한의 딸들이 이제 그리운 고국에서 함께 자리를 합니다.

부디, 참석하시어 환영하여 주시고 자리를 빛 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0월 6일 (일)

14:30 등록 및 입장
15:00 식전행사
15:30 정책포럼
16:30 시상식
17:30 총평
18:00 환영만찬(해외참석자)

2019년 10월 7일 (월)

7:00 조찬
8:00 회의
10:00 한국방문의해 선정도시 정읍 출발
12:00 환영오찬
13:00 동학운동의 뿌리를 찾아서 - 역사탐방
17:00 '화(話)살롱 <공감콘서트>
18:00 VIP환영만찬

2019년 10월 8일 (화)

07:00 조찬
09:00 문화탐방
13:00 오찬
14:00 내장산
16:00 서울출발
19:00 송별만찬

◆ 개막식 참석 사전예약 필수. 초대장 지참자만 입장 가능 ◆

◆ 당일 현지 사정에 따라 시간 및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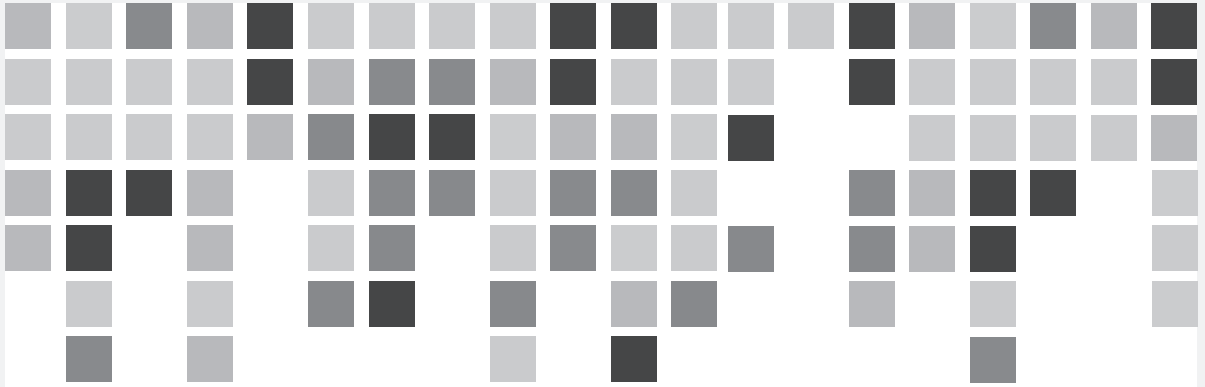
◆ 숙소 : 10월 6일 - 여의도 호텔 / 10월 7일 - 대명 리조트 변산 ◆

◆ 참석문의 : 사무총장 박세영 ☎ clubkoreana@hanmail.net ☎ 010-2317-8840 ◆

창립 6주년 UWKW 세계대회

공동대회장 · 세계한인여성협회 총재 이효정
· 국회의원 윤종필
· 한국여성언론협회 총재 박영숙





아시아발전재단

Asia Development Foundation



더불어 함께 가는 아시아



교류와 협력 · 나눔과 상생

전 세계 인구 60% 이상이 살고 있는 아시아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의 땅입니다.
재단법인 아시아발전재단은 다시 아시아로! 라는 기치 아래 아시아 각국의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 시키는 다양한 지원 사업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
사람들과의 교류 확대 및 인재 육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ADF

Asia Development
Foundation